

경제

전남도-중소기업중앙회 선정 전남 강소기업

철·금속 융합 친환경 신소재강판 생산

해원엠에스씨

해원엠에스씨는 순천 서면공단에 있는 중경 철강업체다. 1996년 설립된 모회사 해원에스티를 기반으로 2003년 설립했다.

건축 내외장재, 지붕재, 엘리베이터, 주방가구, 방화문 등의 건축자재 품목과 자동차, 선박자재로 활용되는 접합강판을 생산하고 있으며 11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주력제품은 '에코틸(Ecotel)'(사진)이란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 접합강판이다. 에코틸은 세계 최초의 친환경 신소재강판으로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미국 MSC와의 제휴를 통해 개발됐다. 접합성수지를 이용해 철과 비철금속을 접합시키는 획기적인 기술을 적용해 만들어진 강판으로 건축 내외장재부터 산업재까지 적용범위가 다양하다.



에코틸을 건축 외장재로 사용해 시공한 건물 전경.

탁월한 소음차단에 단열, 가공성, 원가절감 효과가 뛰어난 뿐만 아니라 수려한 미관과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어 여러 산업분야에서 인기리에 쓰이고 있다. 조달청에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신기술 등록을 마쳐 관급자재로도 품질을 인정받았다.

에코틸은 또한 금속의 표면처리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과 연출이 가능해 가전제품 등 산업 전 분야

에 적용이 가능하고 고가의 비철 금속에 대한 가격경쟁력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김용호 대표는 "접합강판 외에도 용융아연도금강판, 제진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며 "열연코일 가공에서 금속표면처리 완제품 출하까지 일괄 생산체제를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y@kwangju.co.kr

기업 57% "외환위기보다 어렵다" 상의 300개사 설문

기업 10곳 중 6곳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현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설립 30년 이상 된 전국의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환위기 15년,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57.1%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기업하기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비슷하다'는 31.7%, '좋아졌다'는 11.2%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이전과 기업 환경을 비교한 결과(복수응답) 91.4%가 '경쟁이 심해졌다'고 답했고, 71.9%는 '투자 기회가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77.6%는 '자금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83.8%는 '직원들의 예상이나 열정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각각 평가했다.

기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예전만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위기 전과 비교해 기업에 대한 사회 인식이 어떠

냐는 질문(복수응답)에 85.5%가 '반기업 정서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 75.6%가 '불만 제기 등 소비자 주권행사가 늘었다'고 각각 답했다. '경제 전체의 활력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79.5%에 달했다.

비상경영 여부에 대해 65.7%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를 겪은 뒤 상시 비상경영 체제로 버텨왔다'고 답했다.

향후 15년 글로벌 경제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해 59.1%가 '시장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꼽았고, 29.7%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시장 창조자'(Market Creator) 전략을 들었다. 세계 1위 제품을 벤치마킹해 개선 제품을 내놓는 '상위기업 추종'(First Follower) 전략을 펼치겠다는 기업은 11.2%였다.

앞으로 기업 경영의 키워드로 '사회적 책임', '인재 경영', '세계 일류' 등을 꼽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공정위 편의점 거리 규제

업계 "출점 위축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5대 대형 편의점의 과도한 신규 개점을 막자는 취지의 모범거리기준을 발표하자 관련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또 "상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정위가 기존 편의점에서 250m안에 같은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을 금지하자 업계에서는 신규 출점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서울지역에서 동일 브랜드와 250m 안에 위치한 점포의 비율은 각각 CU 44.6%, GS25 51.4%에 달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50m로 제한을 둘 경우 실제 진출 가능한 지역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자연스레 상장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재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창업에 악영향을 주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필수기자 buny@kwangju.co.kr



광주 미니클러스터-금융 통합 포럼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이현수)는 12일 오후 광주 첨단신단 내 공단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6개 미니클러스터 회원사와 지역 금융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성과를 공유하는 '광주 미니클러스터-금융 통합 포럼'을 개최했다. <산단공 호남권본부 제공>

연결구 일체형 PE하수관 수도권 공략

보성포리테크

보성포리테크는 보성군 벌교읍 농공단지에 본사를 둔 파이프 전문 생산업체다.

2001년 창업이후 합성수지로 만든 전선관을 시작으로 배수관, 하수관, 오수관, 상수도관, 농업용수관, 화학약품처리용 폐수처리관, 가두리양식용 수산관 등 각종 파이프는 물론 파이프 관련 부품인 엘보와 소켓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력제품은 연결구 일체형 PE(폴리에틸렌) 하수관이다. 접단부위에 별도 연결구가 필요없는 점이 특징으로 물이 새나갈 위험이 전혀 없고 물어넣기 접합방식으로 시공기간이 단축돼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다. 특히 연결소켓의 재질이 유연해 굴곡구간 공사에 적합하고 비가 오거나 침수시에도 배수처리 없이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술력이 인정받아 창업 2년째



연결구 일체형 PE(폴리에틸렌) 하수관.

인 2002년 ISO 9001 인증을 시작으로 KS마크를 취득했고 2005년 우수제품마크인 GQ 인증과 2011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Q 인증을 받았다. 2006년에는 벤처기업 등록을 마쳤고 전남도와 조달청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유망중소기업 지정과 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2007년부터는 서울과 경기도에

사무소를 두고 연결구 일체형 PE 하수관을 중심으로 수도권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김성식 대표는 "주력제품인 하수관 외에도 가두리양식장과 폐수처리에 쓰이는 특수한 파이프 생산에도 전력을 기울여 파이프 하면 보성포리테크를 떠올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y@kwangju.co.kr

한은 기준금리 2.75%...두달째 동결

기준금리가 연 2.75%로 동결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11월에 이어 이달에도 연 2.75%로 유지했다. 10월 이후 두 달째 동결이다.

기준금리는 작년 5월 3.0%에서 6월 3.25%로 오른 뒤 13개월만인 올해 7월 3.0%로 낮아졌다. 2011년 2월 이후 20개월만인 지난 10월 부터 2%대로 떨어졌다. 최근 들어 수출이 회복돼 올해 3분

기를 저점으로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기대적인 전망이 이번 동결의 주요인으로 보인다.

특히 대선이 몇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 판단도 작용했다.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정책 효과를 좀더 두고보자는 고려도 감안됐다.

국내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다소 호전

되고 있는 점도 동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정적벽' 협상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협상 타결 여부 등 대외여건의 변화 가능성을 가다릴 필요성도 동결에 힘을 보탤다. 재정적벽이란 미국의 각종 세금 감면 정책이 올해 연말에 끝나 내년부터는 가세·기업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정부 지출이 삭감돼 미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연필수기자 buny@kwangju.co.kr

10월 광주·전남 금융기관 예금 줄고 대출 늘어

10월 중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예금은 감소하고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2012년 10월 중 광주·전남 지역 금융기관 예·수신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신은 전월의 큰 폭 증가(+9684억 원)에서 감소(-3710억 원)로 전환했다.

예금은행은 세금납부 자금수요 등으로 큰 폭의 감소로 전환(+2799→-4349억 원)했고 비은행금융기관은 상호금융 수신 자금이 감소로 돌아섬에 따라 증가 폭이 크게 축소(+6884억 원→+639억 원)됐다.

금융기관의 여신은 전월의 5053억 원 증가에서 5570억 원 증가로 이어

지는 등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예금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4765억 원→+4394억 원)했고 비은행금융기관은 가계대출 등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 폭이 확대(+287억 원→+1176억 원)됐다. /이민미기자 emliee@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02.77 (+27.33)
▲ 코스닥지수	490.15 (+4.82)
▲ 금리 (국고채 3년)	2.86% (+0.03)
▲ 원·달러 환율	1073.00원 (-2.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연료비걱정은 이제 그만

주거 사무실 영업장 공장 등 실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며 뛰어난 난방효과와 함께 고상하고 우아한 실내분위기 연출효과!!

A형 불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220V, 60Hz	단독형(스토브식)난로	220V, 60Hz
500 x 530 x 870	외형 치수	550 x 750 x 1050	외형 치수
약 65kg	제품 중량	80kg	제품 중량
일 8시간 기준 약 10kg	펠릿연료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12kg	펠릿연료사용량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소 연료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소 연료
최대 20kg	연료 저장량	최대 30kg	연료 저장량
60W	전기소비전력	70W	전기소비전력
983m(구 약20~30평형)	사용 면적	약1.49m(구 약40~50평형)	사용 면적

연료절감 비용으로 장기할부 가능

제품별 연료 소비량 비교분석표			
제품명	사용연료	일 8시간기준 사용량	금액(한시)
펠릿난로	우드펠릿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펠릿 연료란?
목재를 연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석유 대비 값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로써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문의 070-4111-7823
전화 010-9468-3282

대리점 · 취급점 · 딜러
영업사원모집 (유사업종 우대)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 3단계 치료로 해결

안구건조·눈피로 눈이 마르고 건조하며 침침하고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다

최근 직장인 및 수험생, TV를 자주 보는 어린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자마자 눈이 쏟아질 것처럼 피로하고 머리카락이 두꺼워지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을 '안구건조(眼乾燥)' 또는 '안정피로(眼精疲勞)'라고 한다. 눈피로는 보통 사람이라면 별로 피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 쉽게 눈에 피로를 느끼고, 두통이나 시력장애, 복시(複視)·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현상(重影)을 일으키고, 심할 때는 구토까지도 일으키는 질환이다. 물론 난시, 원시, 사시의 소유자는 더욱 빨리 피로증세를 보인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안정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원인은 간에서 찾아야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억제되고 시간이 지나 간화(肝火) 혹은 간열(肝熱)이 쌓이면 그 열이 머리와 눈으로 표출된다.

이 때 간의 화기(火氣)가 인체의 상부인 머리와 눈에 영향을 미쳐 눈이 마르고 건조해지며, 침침해지고 피로해지며 심하면 '눈에서 불을 끄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눈을 뜨기가 힘들어 눈을 감고자 하고 상대방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며 상대방도 내 눈을 쳐다보면 눈이 피로해진다거나 눈에 이물감이 있는 것 같고 말기상황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만성피로 쉬어도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전신피로는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질환으로 발견되지 않지만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조금만 육체적인 일을 해도 피곤이 가중되며, 휴일에 잠을 자도 피곤이 개편되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뒷목이 항상 뻣뻣하다.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입이 자주 마른다. 업무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폭 자고

쉬기 등 나름대로의 '피로회복 대책'으로 피로를 풀려고 할 뿐 피로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할 질환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피로야말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질환이다. 과도한 피로증세는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내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신피로, 만성피로 증세는 한방치료가 제격이다. 단지 증상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보(補)해주는 한약 자체의 특성으로 피로의 원인은 물론 몸의 건강 자체를 살려주기 때문이다. 인다라한의원은 이런 전신피로의 원인을 소화기의 약화와 기혈의 부족과 막힘,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본다.

인다라한의원 대표원장 한의박사 김영삼원장

www.indara.co.kr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60-2 광주은행 6층 (광천사거리 광천리출삼 맞은편)

광주점 062-368-5075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공익의뢰 제120106-총-9820호 (공표)